

사설

오늘날 방송이 일반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불교의 교리상 진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그 마음을 전하는 수단은 말이었다. 대중매체로서의 방송과 불교적 가르침의 결합은 불교의 포교와 대중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불교방송이 창사 이래 5년동안에 우리의 생활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불교방송에서 일해 온 방송인들의 노력도 컸지만, 방송 그 자체가 갖는 현대사회적 의미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종교에서는 일주일마다 한번 이상씩 정기적인 예배시간을 가져 모든 소속교인들이 함께 모여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나 불교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정기적 종교활동보다는 개인적 수행에 의존하는 경

비하면 불교의 5개 채널은 열세이다. 이점에 대해 월주스님은 정부의 편향정책 시정을 촉구하면서 당초 요구했던 대전·전주·춘천·창원·제주·강릉국 허가를 강력히 요청할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여건과 기반위에서 불교방송의 당면과제는 부산·광주국 개국을 거름삼아 대구·청주지방국 개국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방송의 질적향상에 매진하는 일이라고 본다.

최근 공개된 한 정취을조사에 의하면 BBS의 프로그램들이 일반 청취자들의 정취의욕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교방송이 전문성과 대중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BBS는 포교매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불교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종교적 신심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여야겠다. 방송을 하는 목적 자체가 불교적 메시지를 전파

불교방송 이제 거듭나야

우가 많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종교문화의 형성은 오히려 다른 어느 종교보다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교방송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면서 나름대로 비불교적 요소를 거둬내고 불자들의 신령을 바르게 이끌어온 성과는 방송포교의 중요성과 역할을 가늠케 한다.

텔레비전의 출현과 더불어 그 존재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라디오 방송은 오히려 사회의 여론주도층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는 매체가 되었다. TV시청에 따른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계층이나, 수험생 등 특수집단에서는 오히려 라디오를 주요한 방송매체로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여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불교방송은 출범에 개국한 부산·광주국에 이어 대구·청주지방국 설립(5월19일 인가)을 눈앞에 뚫으로써 전국적인 라디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개국 5년만에 전국방송망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물론 기독교계 13개 채널에

하다는데 있으므로 방송인 스스로 종교적 신심에 투철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보사회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추세를 방송에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총인방들이 명실상부한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불교의 정보사회적 적응과 혁신을 선도해줄길 바란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불교사회가 종교적 공동체로서 유대감을 가지고 도반의 정진을 갖출 수 있도록 불교인의 연결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국5년에 전국망 구축, 여기서 BBS는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과제 앞에 교계의 현안인 '불방사태'는 하루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에 이은 그간의 경험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개혁의 소리, 나누는 기쁨'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겠다. 이 대작사를 위해 BBS와 불교계는 세계최초의 불교방송 설립에 가슴 설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6.27 지방선거 자원봉사에 동참합니다
불교시민사회단체 정책캠페인 및 공명선거감시단
부기 2539년 5월 30일 오후 2시 총무원 1층강당 불교시민단체협의회

◇ 불민협 공명선거감시단은 5월30일 발대식 후 조계사를 둘러 제 일은행복까지 지기 캠페인을 벌였다.

◇ 한국은전물자회와 BBS교동통신원들은 차내에 부정선거 신고함과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선거의 파수꾼으로 나섰다.



필연적 선택, 그러나 현명해야할 선택. 6·27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가 공명선거 파수꾼으로 나섰다. 불민협은 지난달 30일 '불교시민단체 캠페인 및 공명선거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10여개의 감시수칙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 30호 15면)

또한 전국11개지역 한국은전기사물자회와 서울 BBS 교동통신원들이 공명선거 감시운동 의지를 표명하여 차내에 선거부정 신고용 우편엽서와 공명선거홍보물을 비치, 침입권을 받는 선거과정에서 불자의 동참을 비하고 있다. 대구 불교청년회와 속초불교청년회도 깨끗한 선거의 감시자로 나섰다. (편집자 주)

열린 마당

공명선거 감시

참일꾼을 뽑읍시다

앞으로 다가올 6·27지방자치 선거가 우리사회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일꾼을 뽑기 위한 우리 불교도들의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시민단체협의회는 우리 불교도들이 지방의 의정참여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지금까지 불교도들이 보여왔던 정치 무관심을 타파하고 올바른 공명선거를 이

덕심스님



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종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배척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할 일꾼을 가려내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공명선

민자치를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불자들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민협 정책실장)

이번 선거에는 광역, 기초 의회의원과 단체장을 포함하여 5만여명의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명이나 개

이렇게 감시합니다



문영호 회장

인사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출마하는 등 자격이 의심스러운 이들도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육식을 가리는 것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하겠다. 바로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이다.

누구보다 빨리 잡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 운전기사연합회가 발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 타락 고발엽서를 차내에 비치, 운행중 목격되는 각종 불법사태를 그때그때 고발하도록 해야겠다. 또한 선관위에서 제작한 각종 공명선거 홍보물도 차내에 비치하여 승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불자들이 선거운동에 모범을 보이는 것은 불자된 도리이자 훌륭한 포교가 되기 때

공명선거감시단 발대선언문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민주적인 정치·경제공동체가 인류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체제라고 가르쳤다. 2천만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바람직한 지방자치기 뿌리를 내리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모든 정당과 입후보자들은 정책대안을 전폭 수용하여 공약할 것을 촉구합니다.

· 모든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최우선하여 지지, 투표합니다.

·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별, 분야별 정책컨설팅과 공명선거감시에 적극 동참합니다.

· 불자들은 한시라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합니다.

· 특정종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배척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할 일꾼을 뽑읍시다.

불법 고발 엽서 차내 비치 육식 가리는 일 불자의 몫

불자들도 공명선거감시활동에 앞장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먼저 시민의 발인 자택시각시찰의 활동이 기대된다. 택시는 여론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곳곳을 운행하며 지역내 각종소식을

차나 대문앞에 붙이고 이웃에 권한한다.

자원봉사 참여합니다

· 자신의 선거구 후보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를 합니다.

· 우리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합니다.

문이다.

공명선거 감시활동은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도덕성이 요구된다. 감시활동이 편협되어서는 안되겠다. 철저한 공명선거 감시활동이 있을 때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이 당선될 것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갖가지 사회적 비리와 권력형 행정부패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혁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여법하게 치루어 지도록 불자 모두가 사천왕이 되자.

(전국운전기사물자연합회)

감시단 발족 '사천왕' 다짐 자원봉사·연고주의 배격

무고자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처해있는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민주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통하여 민족 내부에 증폭되어 온 증오와 갈등은 6·27 공명선거를 통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주의와 학연, 혈연, 금권, 관권에 의해 선거의 결과가 좌우된다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앞날은 지역감정과 끝없는 경쟁만이 계

거감시단을 만드는 것도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한 자원봉사 참여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공명선거 달성을 위해 2천만 사부대중의 부름은 두 눈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

감시수칙

연고주의 배격합니다

-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는 선거중립을 지킵시다
-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을 들어봅시다.

선거기간중 연고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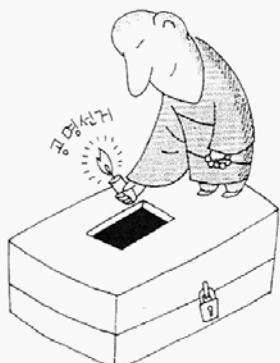
- 정책보고 선택합니다
- 후보의 경력을 볼 때 정책의 공적이나 실패의 경력을 살펴봅시다.
-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공약을 적극적으로

선거부정 고발합니다

- 향응제공은 무조건 신고합니다.
- 진화기 옆에 747-9898(공명선거감시위원회)를 적어둡시다
- 공명선거 스티커를 승용

현대만평

박구원



감시

불교는 아름답다!

세계불교문화전

기간: '95.5.2 - '96.1.31

고색장연한 3천년 불교의 역사— 세계 속에 살아숨쉬는 찬란한 그 황금빛 문화가 고스란히 자연동원에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네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세계각국의 불교문화가 쉽고 재미있게 다가올 자연동원 세계불교문화전—

부처님 진신사라에서부터 성철스님 유품에 이르기까지— 황홀하고도 흥미진진한 불교문화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주최: 불교방송 재민원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협력: 대외협력부

7개국 국보급보물 3백여점이 한자리에

세계의 경전, 승복, 불교문화용품 및 생활용품, 불화, 불상, 고승유품, 불교유물 등 전세계 희귀불교문화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인도: 석가모니 진신사리 5과, 사리함 외 9점
- 태국: 마하출라롱콘 석가대학박물관의 불상 외 20점
- 미얀마: 쌍연불상, 마불상 외 16점
- 네팔: 키모승 불상 박물관의 달마상 외 14점
- 티베트: 보드나트 사원 미니어처 외 30점
- 한국: 성철스님 유품, 서산·사명대사 유품 외 130여점 등

"경이로운 불교의 세계를 만나다!"

"석가모니 진신사리 최초공개!" 석가모니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스님 유품관
"한국불교의 진수를 맛보세요" 한국관
"대륙 불교문화의 정대함을 느낍시다!" 중국관
"신비로운 네팔불교가 다가옵니다" 미얀마, 태국관
"불교의 고향을 찾아서— 인도, 네팔관
"불교문화의 황기 속으로 떠나는 영상여행" 불교영상관
"울거울 수 없는 유적은 남아있습니다!" 불교유적사진전시관
"사는 모습은 달라도 佛心은 하나!" 생활, 풍습관
"전세계 불교상품들이 한자리에—" 상품관

자연동원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745-0421 (02)3510-3322-4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천로 611-1 (051)351-3114